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79
----------	------

발의연월일 : 2020. 1. 5.

발 의 자 : 金炳旭 · 권은희 · 박완수  
허은아 · 이종배 · 황보승희  
김정재 · 배준영 · 김기현  
곽상도 · 주호영 · 이 용  
이 영 · 김태호 · 하태경  
이종성 · 최춘식 · 송언석  
유의동 · 강민국 · 추경호  
정찬민 · 양금희 · 김태흠  
정진석 · 류성걸 · 권명호  
김은혜 · 김도읍 · 이명수  
윤희숙 · 김 용 · 정운천  
윤두현 의원(3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9,676여건, 2017년 34,169건, 2018년 36,417건, 2019년 41,389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법·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아동학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 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변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음.

이에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7조의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아동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생략) <u>&lt;신설&gt;</u>	제11조(현장출동)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피해아동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한다.</u>
<u>&lt;신설&gt;</u>	<u>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u> <u>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u> <u>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u>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